

Title: The Judges – Sermon 5: Sermon notes

Scripture: Judges 6:11-14

Date preached: April 17th 2022

Scripture: Judges 6:11-14

11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under the terebinth tree which *was* in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ile his son Gideon threshed wheat in the winepress, in order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you mighty man of valor!”

13 Gideon said to Him, “O my lord, if the LORD is with us, why then has all this happened to us? And where *are* all His miracles which our fathers told us about, saying,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from Egypt?’ But now the LORD has forsaken us and delivered us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14 Then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is might of yours, and you shall sav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Midianites. Have I not sent you?”

11 어느 날 여호와와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12 여호와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 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하자

13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14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judge number four; Deborah. She is an interesting biblical character. She is unique as being the only female judge, and is also in very limited company as one of only four prophetesses mentioned by name in the Old Testament.

Her story in the bible begins whilst she was already serving the people as a judge in Ephraim.

People came to her for judgement on their civil cases. It is whilst she is engaged in this activity that she summons the military leader Barak. God had commanded him to lead the forces against their Canaanite oppressors.

The people of Israel at this time were being oppressed by King Jabin of the Canaanites. It was a period of subjugation that had extended for twenty years.

Barak was reluctant to take the army into the field against the Canaanites without Deborah accompanying them. This was despite having God's assurance that they would be victorious. This hesitancy has led historically to people regarding Barak as being weak and lacking courage. I'm not sure this a fair assessment. Their opponents were well equipped and strong, and even when we know God is on our side we can still have doubts.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he, and not Deborah is mentioned as a mighty person of faith in Hebrews. Deborah agreed to go with him but

told him that the honour of victory would not go to him, but instead to a woman. As predicted the battle goes the way of the Israelites. King Jabin's forces are defeated and Sisera is brutally killed by Jael. Deborah's courage and commitment to faithfully obey God led to 40 years of peace.

Today we turn to another fascinating character. We will be looking at the fifth judge; Gideon. Before we look at the beginning of his role as judge let us put his details into the cycle of sin.

Again the exact nature of the people's sins against God are not given to us. However we do read in chapter 6 verse 10 the following.

Also I said to you, “I *am* the LORD your God; do not fea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dwell.” Bu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Judges 6:10)

So the punishment comes from God for the people's sin of disobedience. On this occasion God raises up the people of Midian, the Midianites against Israel. Midian was located in what is today north west Saudi Arabia. They oppress God's people for 7 years. The people cry out and God provides Gideon. His leadership would bring about 40 years of peace.

Before we look at Gideon's story in more detail let us pray.

지난 시간에 우리는 4 번 판사를 보았습니다. 데보라. 그녀는 흥미로운 성서 인물입니다. 그녀는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독특하고 구약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단 4 명의 여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에브라임에서 사사로 백성을 섬기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가 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그녀는 군대 지도자 Barak 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압제자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20 년에 걸친 토벌의 시대였다.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은 채 가나안 족속을 치러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였습니다. 이러한 주저함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바락을 나약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평가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강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에서 드보라가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Deborah 는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지만 승리의 영예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신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고된 대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갑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 패배하고 시스라는 야엘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겠다는 드보라의 용기와 헌신은 40 년의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사사를 볼 것입니다. 기드온. 심판자로서의 역할의 시작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세부 사항을 죄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죄의 정확한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 장 10 절에서 다음을 읽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삿 6:10) 그러므로 백성의 불순종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십니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합니다. 백성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약 40 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Introduction

Gideon is one of the major judges. His name in Hebrew means "Hewer" or "Hacker," and as we shall see God would use him to "hack down" an altar to Baal and then the Midianites. His importance as a judge is reflected in how much space the author affords him. He receives the most attention of any of the judges. His story takes up nearly three chapters and comprises 100 verses. He is followed in terms of coverage by Samson whose story is told across 96 verses. Compare both of these judges to poor Shamgar who only got one verse!

Gideon's story serves as the central focus to the whole of the book. It is for this reason that he is often referred to as Israel's greatest judge. He is also an interesting character, and many people's favorite judge. This is because he comes across as being very human, very much like us. He is the only judge for example whose personal struggles with faith are recorded for us. As a consequence there is much to say about Gideon. Therefore we are going to break his story into two parts. Today we will look at his call to leadership, his destroying of the altar to Baal and his testing of God with the fleece.

Before we do that let me give you a little history regarding the situation in Israel at the time of Gideon.

기드온은 주요 판사 중 한 명입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승리자" 또는 "해커"를 의미하며, 우리가 보게 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를 바알과 미디안에게 바치는 제단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판사로서의 그의 중요성은 저자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지에 반영됩니다. 그는 심사 위원 중 가장 많은 관심을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의 3 개의 장을 차지하고 100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96 절에 걸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삼손(Samson)의 보도를 따라갑니다. 이 두 재판관을 한 구절만 가지고 있는 불쌍한 Shamgar 와 비교하십시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책 전체의 중심 초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종종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로 불립니다. 그는 또한 흥미로운 캐릭터이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사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와 매우 흡사한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믿음과의 개인적인 투쟁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소명,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일,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에 관한 약간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background to Gideon

The 40 years of peace brought about through the efforts of Deborah and Barak would eventually come to an end. Often the worst thing for us as Christians is to be comfortable, prosperous and live without trials and persecution. We can easily become too complacent. This is what had happened to God's people. Worse still they had not maintained the separation that God required from their pagan neighbours. They had allowed the surrounding culture to change them. There is an important lesson for us to take from this today. We are here to change the culture, not allow the culture to change us.

As a consequence God would allow the Bedouin desert tribes from Midian to oppress them for seven years. The strategy of the Midianites was very interesting. They did not want to militarily conquer Israel and take over the land. Instead, they were happy to let God's people grow crops and raise livestock and then come along and steal or destroy them. They conducted these raids on camels. This meant they could attack swiftly and without warning making them difficult to stop.

The way the Israelites tried to combat this was to hide their valuable things in caves, dens or mountain strongholds. After seven long years of living like this the people cried out for God's help. Let us see who God will send to help His people.

드보라와 바락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40 년의 평화는 결국 끝이 났습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편안하고 번영하며 시련과 박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교도 이웃들에게 요구하신 분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문화가 그들을 바꾸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문화가 우리를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미디안의 베두인 사막 부족들이 7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전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고 나서 그들을 도적질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습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고 없이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저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은 귀중한 물건을 동굴, 굴 또는 산의 요새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 누구를 보내실지 봅시다.

11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under the terebinth tree which was in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ile his son Gideon threshed wheat in the winepress, in order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you mighty man of valor!"

We read here about Gideon's call to service. The first thing for us to note is who comes to commission him. We are told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This is what we term in theology a theophany, or more accurately a Christophany. It was the Lord Jesus Christ, in bodily form who met with Gideon. I hope you realise that prior to His incarnation in Bethlehem Jesus existed as God in spirit form. However there were times when He temporarily took on human form to visit the earth and speak with people. We know from scripture that He appeared in this way to Abraham, Jacob, Moses and Joshua.

So the Lord Jesus came to meet with Gideon in the town of Ophrah (modern day Taybeh). When the Lord appeared to Gideon the son of Joash he was busy working. He was threshing wheat which is usually done outside on a firm, often elevated threshing floor. The idea was that as you thresh the wheat the wind blows the chaff, the useless part away. Here though because he wanted to hide what he was doing from the Midianites he was in the winepress. A winepress was commonly built into the rock or occupied a low place. It was far from an ideal place to thresh. That he was threshing in a winepress gives us some indication of the fear the people had of the Midianites.

Let us see how the Lord addresses Gideon. He says, **The LORD is with you, you mighty man of valor!** This might strike us as being a strange greeting. At this particular time it didn't seem as if God was with him, and Gideon was far from appearing like a mighty man. He was in reality timid and humble. We can imagine him thinking when addressed in this way, "There must be some mistake, I am not a mighty man of valor." Jesus of course was talking about what Gideon would become through God's power, not what he was at the present. Let's see what happens next.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부름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그를 위임하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에서

theophany, 더 정확하게는 Christophany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만나신 분은 형체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성육신 이전에 영의 형태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땅을 방문하여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압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오브라(오늘날의 다베)라는 동네에서 기드온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보통 외부의 단단하고 높은 타작 마당에서 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 바람이 쪽정이를 불어서 쓸모없는 부분을 날려 버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일반적으로 바위에 짓거나 낮은 장소를 차지했습니다. 타작을 하기에 이상적인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용사여!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인사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것 같지 않았고 기드온은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소심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드온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3 Gideon said to Him, “O my lord, if the LORD is with us, why then has all this happened to us? And where *are* all His miracles which our fathers told us about, saying,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from Egypt?’ But now the LORD has forsaken us and delivered us into the hands of the Midianites.”

Gideon's response to the Lord reflects in many ways what we often feel about our situation. As fallible, impatient human beings we often cannot understand why God does the things He does. We are puzzled or frustrated when God does not seem to promptly answer our prayers. Therefore just like Gideon we ask Him questions. Gideon had been brought up hearing about all the amazing things God had done for His people. He had guided them from slavery in Egypt, fed and watered them in the wilderness and then given them a beautiful place to live. So Gideon's question is, given all that God has done for them in the past why has He now forgotten or abandoned them? Gideon wrongly thought the problem was with God. That it was God who had forsaken the people. The truth was the other way around, it was the people who had forsaken God. How does Jesus answer?

주님께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주 느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반영합니다. 오류가 많고 참을성이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분께 질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해 듣고 자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와 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왜 지금은 그들을 잊거나 버리셨습니까? 기드온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 반대였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 Then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is might of yours, and you shall save

Israel from the hand of the Midianites. Have I not sent you?"

The Lord responds by not answering Gideon's question. God knows best in all situations and is not duty bound to explain His reasoning to us. Instead, he tells him that he himself had the power and might to save Israel from the Midianites. This was hard for Gideon to understand. In his own words he came from the smallest tribe, the least important family, and he was the weakest member of his family. This is probably a slight exaggeration, but it does tell us something about his identity and self awareness. But God as we know can use small and weak things in mighty ways. He frequently delights in taking what the world looks at with disdain and using it to His glory. Gideon as we will see would go on with God's help to do amazing things. Let us skip ahead a little here to look at his first mighty act; destroying the altar to Baal.

주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추론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그는 가장 작은 부족, 가장 덜 중요한 가족 출신이었고 그의 가족 중 가장 약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약간의 과장일 수 있지만 그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들을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자주 즐깁니다. 우리가 보게 될 기드온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위력적인 행동을 보기 위해 여기에서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

Destroying the altar to Baal

Gideon's first mission would be to destroy the altar and statue that his father had made to Baal. Baal was the Canaanite fertility god. The basic belief surrounding Baal was that he was responsible for crops growing, and animals being fertile and reproducing. In order to get Baal to do as you wished or stimulate him into action it was necessary to offer him worship. This worship may be through ritual, sacrifice or sexually provoking acts. People believed that when they became sexually excited it also excited the god. It was certainly this sexual element that made the worship of Baal appealing to many. So Gideon is told to tear down this altar and chop or hack down the wooden statue that stood next to it. This act would show his faith and commitment in God along with a strong rejection of the pagan worship of Baal. Gideon had some fear about doing this. His family and the town worshipped Baal. They would be angry with any person who desecrated their idol. As a consequence he goes at night to carry out this act. We may view this as a compromise but at least he got the job done. The people are indeed angry but Gideon's act of bravery wins over his father.

The final thing we will consider here is the well known story of the fleece.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만든 제단과 신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둘러싼 기본적인 믿음은 그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이 비옥하고 번식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거나 그를 행동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숭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숭배는 의식, 희생 또는 성적 자극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으로 흥분하면 신도 흥분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확실히 이 성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서 있던 나무 조각상을 자르거나 부수라고 합니다. 이 행위는 바알에 대한 이교도 숭배에 대한 강한 거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마을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밤에 간다. 우리는 이것을 타협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는 일을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지만 기드온의 용감한 행동이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잘 알려진 양털 이야기입니다.

The story of the fleece

We pick up the story with the people of Israel facing a considerable invasion force. The Midianites and the Amalekites had combined their forces,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were now en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An attack was imminent. Gideon we are told wa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He blows the trumpet, the call to arms, and 32,000 warriors of Israel gather around him. It's at this point that Gideon seems to suffer a crisis of confidence.

Despite all that he has experienced he seems to doubt whether he can do what God wants him to do. In order to seek or clarify God's will on this he decides to put God to a little test.

He wants a sign from God proving that he is the one who will save Israel. If God performs the sign, either making the fleece (wool) wet or dry overnight Gideon will know God's will.

Now given the importance of the mission we might excuse one test. That Gideon tested God twice indicates a weakness of faith. However we should be wary of standing in judgement of him. How often do we look for a sign, or refuse to act because of our weak faith. God in Gideon's case performed the signs and next time we will see Gideon hack down the Midianites.

우리는 상당한 침략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접어들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은 연합하여 요단 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기드온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고 군대를 부르니 이스라엘의 용사 32,000 명이 그를 에워쌌다.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자신감의 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약간의 시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양털을 밤새 젖게 하거나 말리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 가지 테스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 번 시험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표적을 구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행동하기를 거부합니까? 기드온의 경우에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다음에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나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논평을 할 것이 있습니다.

1 God can use the weak

Gideon did not recognise Christ's description of him. A mighty man of valour. That's not me, he thought, I'm a nobody, a nothing, surely God cannot use me. This is of course wrong on every level. God can, and does use all kinds of people in extraordinary ways. I recently read a book about Gladys Aylward. She was a British maid who felt God's call to go as a missionary to China in the 1930s. She had virtually no money, could not speak Chinese and had never previously been outside of England. She simply had faith that God could use her. He did indeed use her in a mighty way. So my challenge for you today is to think how God can use you. We are all weak, insignificant and powerless but God can use us if we are willing and have faith.

기드온은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묘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감한 사람. 그는 내가 아

니라 아무 것도 아닌 존재, 신은 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수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비범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십니다. 나는 최근에 Gladys Aylward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1930년대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영국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돈이 없었고 중국어를 할 수 없었으며 이전에 영국 외부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저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력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Have we forsaken God?

Gideon wrongly thought that God had forsaken the people. Let me remind you that God never leaves or forsakes His children. But sadly we frequently push Him to one side and think we know what's best. The people of Israel were living in a situation of desperation and despair not because of God, but because of what they had done. All that was needed was for them to turn back to God and put all their worries and cares upon Him. What about us? Are we worried, stressed or anxious because we are relying on our own strengths or abilities? If we are, have we not forsaken God. Have we not abandoned the love and care that He has for us. Let us then seek to renew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God.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자주 그분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절망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회사 소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점이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걱정, 스트레스 또는 불안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사랑과 관심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3 The idols in our own back yard

It's interesting to think about Gideon's first task as judge. He was not commanded to travel to some distant place to handle a problem there. No, his first mission was to solve the problem in his own back-yard. He was to first handle the idolatry in his own family home. Only then would he be ready to deal with issues in the world. There is an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here. We cannot go out into the world to do good until we have dealt with issues closer to home. How often do we see this play out today in the church. Churches that preach about the evils of sexual fornicati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only to have the pastor or elder caught up in a sex scandal. Churches that talk about the evils of greed only for the elders to be avoiding tax or involved in some shady business dealings. The message should be clear. Before we clean up the filth outside let us clean up the filth inside.

재판관으로서의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세상의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선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다. 성적인 음행, 음란물, 매춘의 해악을 설교하기 위해 목사나 장로를 성 스캔들에 빠뜨리는 교회. 탐욕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회는 장로들이 세금을 피하거나 일부 음흉한 사업 거래에 연루되도록 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외부의 오물을 청소하기 전에 내

부의 오물을 청소합시다.